









임선희, '가방속에'



김혜선, '꿈-2008'

이 작품은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현대 미술 작품이다. 작품의 주제는 인간의 내면 세계와 감정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품은 시각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색상과 질감의 대비를 통해 강한 표현력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평화 5년>을 주제로 한 미술 전시회 중 하나인 <peace-5년 평화의 날>에 출품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평화의 가치를 강조하고,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며,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작품은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현대 미술 작품으로, 시각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구성을 가지고 있다. 작품의 주제는 인간의 내면 세계와 감정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품은 시각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색상과 질감의 대비를 통해 강한 표현력을 보여준다.

이 2017년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평화 5년> 미술 전시회 중 하나인 <peace-5년 평화의 날>에 출품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평화의 가치를 강조하고,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며,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작품은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현대 미술 작품으로, 시각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구성을 가지고 있다. 작품의 주제는 인간의 내면 세계와 감정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품은 시각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색상과 질감의 대비를 통해 강한 표현력을 보여준다.